

2021년 두 번째 호 (통권 35호)

# 별마을 여름

(星村, 별 성 마을 촌)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 2020년 여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 별마을 010-111-71

(星村, 별성 마을 촌)

## Contents

2021 Vol. 35

- 03 프롤로그 (별마을 New Face)
- 04 별마을이야기#1 (가족들과 TV속에서 만났어요.)
- 05 별마을이야기#2 (5월의 어느 공휴일에)
- 06 별마을이야기#3 (깍두기 만들기~)
- 07 별마을이야기#4 (오늘의 요리사)
- 08 별마을이야기#5 (우리들이 실내에서 여가를 보내는 방법)
- 09 별마을이야기#6 (나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 10 별마을이야기#7 (내가 바로 성촌의 건강지킴이~!)
- 11 코로나19이겨내기
- 12 별마을메모리즈
- 13 행복한동행
- 14 좋은이웃들 (동암누리마실방 1호)
- 15 감사합니다



# 별마을 New Face

## 새로운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 뛰어난 사교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겸비한 김다훈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성촌의집의 4월1일부터 새로운 가족이 된 사회복지사 김다훈 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신입직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서투른 부분이 많지만 하나하나 극복해나가면서 성촌의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과정 지켜봐 주세요~!



### 앞으로 최고의 회계·행정 전문가로 거듭날 새싹 김혜옥 사무원

지원1부 사무원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3월 1일에 첫 입사를 하였고, 성촌의집이 저의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처음이라는 설렘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하여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별마을 사람들의 삶시세끼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김희정 영양사

5월 1일부터 한가족이 된 영양사 김희정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용자분들과 직원분들의 격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 새로운 이용자들을 소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촌의집으로 이사 온 정대화입니다.

성촌의집에 5월달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성촌의집은 밥이 맛있고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일본어 공부를 독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 TV화면 속에서 형님을 만난 날



예전에는 성촌의집에 형님이 자주 방문해서 안부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TV속 뉴스에 나오고서부터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저도 조심하고 형님도 조심해야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형님을 직접 보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성촌의집에서 형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가정모임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이번 모임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못본지 오래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얼굴보고 얘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형님도 내가 보고 싶다고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님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TV화면속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TV화면속에 얼굴이 비치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TV화면속의 형님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하고 같이 참여한 성촌의집 동생들도 옆에서 각자의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 기간동안 성촌의집에 있으면서 요리하기, 운동하기, 건강검진, 병원진료, 노래부르기, 방청소 하는 사진들을 화면으로 같이 보고 내가 직접 형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택아. 잘 지내고 있는거 보니 좋다. 앞으로도 잘 지내야 한다?"

"응. 알았어. 나 잘 지내고 있어. 형도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해."

형님의 경쾌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신이 났습니다. 내 대답에 형님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비록 TV화면 속으로 만났지만 형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근택 이용자 -

# 5월의 어느 공휴일에~!

날씨는 좋은데

달력은 빨강 표시가 되어 휴일을 알리고

B동 3층에서 함께 사는 우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촌의집 안에 있건.

성촌의집 밖에 있건.

어디에서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치면 안되겠죠~!

우리들은 웅크리고만 있지 않으려고 해요.

공간을 뛰어 넘어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창환님은 분갈이해서 물을 주었구요~!

강경우님과 최윤식님은 명절문화(?) 고스톱을 치며 힐링을 했어요~!

장근택 이용자와 장순 복지사는 서로의 실력을 봄내며, 장기를 두었습니다~.

낮잠을 아주 길게~주무신 어떤 분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 줄 써달래요.

이름은 밝히지 말라구 하구요!

정대화님은 책상에 앉아 스텐드를 켜고 사색과 글씨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B동 옥상인 하늘정원은 날씨가 덥고 뜨거워져 햇빛 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정원에서 바라보는 항상 다니던 교회가 버젓이 보이는데

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나마 보이는 십자가와 종탑을 보고 마음을 달래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기다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에

오늘의 공휴일은 조금 견딜만합니다





## 깍두기 만들기~

가정식요리 시간에 깍두기 김치를 담아 보았어요.

오늘의 깍두기 김치 담그기 담당 요리사는...

"기대하시는대로 바로바로 나... 장순임~"

자, 지금부터 깍두기 김치 담그기 도전입니다~

"와~ 무가 엄청 커요. 아이쿠! 무거워라..."

제일 먼저 무를 흐르는 물에 씻어요. 무에 달려있는 잔털을 칼로 정리합니다.

도마 위에 무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칼로 네모 모양으로 깍둑썰기 합니다.

깍둑썰기 무를 큰 그릇에 담아 놓아요. 그리고 굵은 소금을 뿌려 절입니다.

"와~ 내가 잘 해요. 그렇죠?"

"으쌰으쌰... 살살... 이렇게 해요? 순임이가 했어요"

무가 절여지고 나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액젓 등을 넣어 버무립니다.

완성된 깍두기 김치를 통에 담기 전에 동료이용자들을 불러 봅니다.

동료이용자들에게 간보기 시식을 합니다. 김치 맛을 본 동료들이 맛 평가를 해 줍니다.

"간이 딱 맞아~!"

"와~ 순임이 최고~"

"좋아! 맛있어~"

"우와!~ 깍두기 잘했네~"

기분 좋은 칭찬에 나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깍두기 김치를 실온에 두어 익혔어요.

두근두근...개봉박두~!!

드디어 깍두기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우와!~ 내가 깍두기 만들었어요. 밥과 함께 먹어요.

으음~ 너무 맛있어. 최고야~~~"





# 오늘의 요리사



요리하는 강인태 이용자

이용자 매주 화요일, 토요일 요리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무엇을 만들지 메뉴를 정해요.

다음 주에 무엇을 만들어 먹을지 김현○님 이용자가 묻자

계란말이를 만들어 먹고 싶어요.

은 어떤 국을 만들어 먹을까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요리 하는 날이에요.

요리할 시간이 되자 손을 씻고 앞치마를 착용 후 장갑까지 착용하면 요리 준비 끝. 계란말이를 하기 위해 파와 프라이팬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소금과 콩기름을 준비해요.

계란에 파와 소금을 넣고 숟가락으로 휘휘 돌려서 잘 섞어 주어요.

김치찌개는 레토르트 냄비를 깨끗이 물로 씻고 끓일 때 넘치는지 잘 끓고 있는지 자리를 지킨 후 간을 보면서 짜면 물을 더 넣고 신거우면 더 끓여요.

요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사용했던 프라이팬과 그릇들을 깨끗이 닦아서 건조시키고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서 맛이 어떤지 묻자 엄지를 내 밀며 맛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요리에 진심을 담아서 그런지 더욱 맛있는 식사였어요.



# 나만의 DIY 만들기에 도전해요~

코로나19로 외부로의 외출이 쉽지 않아 실내에서의 답답함과 무료함을 달래 주고 우리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찾아봅니다. 이용자들이 그동안 여가로 선호도가 높았던 꽃꽂이, 화분심기, 냅킨아트, 천연비누 만들기를 나만의 DIY 만들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들의 솜씨 한 번 보실래요?~”

## 첫 번째 시간으로 꽃꽂이와 화분심기...

오늘의 꽃꽂이의 주제는 향이 그윽한 후리지아 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활력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역시나 꽃에서 나는 향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네요. 그리고 작고 예쁜 화분 옮겨심기도 하였습니다. 물주기 달력을 만들어 날짜에 맞추어 정성들여 화분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 두 번째 시간은 냅킨아트 공예...

내가 좋아하는 냅킨의 모양을 골라 가위로 자른 후 원하는 곳에 본드로 붙여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건조시키고 나서 마감제 바른 후 완성합니다.



## 세 번째 시간은 천연비누 만들기...

잘라 놓은 비누베이스를 비커에 담아 열을 가한 후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부어 알록달록 모양의 보석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 나의 하루를 소개 합니다

## #강경우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지 1년을 넘어 2년이 되가는 듯해요.  
자유운동을 통해 운동량을 늘리고 몸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주일 1회 정도는  
내 몸에 맞는 맞춤 운동을 찾아 체력단련을 하기로 했어요.  
운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 일상이 즐거워요.



## #이인철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어려서 다리 수술을 해서 지금 이 만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아픈 채로 있지 않기로 했어요.  
성촌의집 물리치료실을 자주 이용하여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밴드를 구입해서 틈 나는대로 스트레칭을 해요.



## #성낙길

나는 걸음걸이가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생활동 복도를 걷고 또 걸어요. 걷는 걸로는 양에 차지 않아,  
작년부터 1:1 PT를 시작했어요. 성촌의집 물리치료사가 도와주어 일주일에  
자유운동과 1:1 PT 시간을 꼭 챙기고 있어요. 처음엔 넘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기며 여간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장애물을 잘 넘어가고 균형 잡기가  
수월해졌어요. 운동시간이 자꾸 기다려져요. 운동이 끝나면 땀으로 목욕을 해요.  
운동 후 내 방으로 돌아와 욕실에서 하는 샤워는 최고예요



## #장근택

운동하기를 좋아하지만 딱히 운동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 나는,  
올 해 열심히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외부 강사님과 줌으로 단체운동에 참여하기, 성촌 댄싱 스타라는 스포츠 댄스 참여하기.  
자유운동으로 1시간씩 자전거 타기를 해요.  
근력운동, 하체운동에 집중하면서 건강해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네요.

## 내가 바로 “성촌 댄싱 스타”

인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받고 박영주 강사님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성촌 댄싱 스타”가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댄스의 기초 스텝과 유행하는 노래의 안무 배우기,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흥 많은 우리 성촌 가족분들은 요즘 가장 핫한 박군의 “한잔해”안무 배우기에 흥뻑 빠졌습니다^.^



## 부평구 체육회 홍유정 강사님과 함께하는 찾아오는 생활체육 단체운동

지속되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성촌의집 가족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비대면 생활체육에 강사님과 이용자분들도 점점 적응하고 운동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체력도 점점 향상하여 운동하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의 칼군무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다양한 고난이도의 동작들도 강사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멋짐 폭발하는 성촌의집 가족분들>\_<!!





## 이제 그만~~

2021년 4월20일

성촌의집은 특별한 장애인의 날을 보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던 슈퍼, 미용실, 음식점 등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나보니 코로나19 종식이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 코로나19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기대를 품고 2021년 시작한 우리들의  
한숨은 계속 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고 성촌의집의 이용자분들과 직원들도 백신접종 1차를 맞을 수  
있게 되어 2021년 4월20일 접종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거죠.

이용자 26명 직원4명, 나머지 직원 17명은 5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종 전 일주일, 접종 후 일주일 직원들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녁 야간당직  
수를 늘려 이용자 지원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행히 이용자도 직원들도 큰 무리 없이  
백신접종 1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7월과, 8월 백신접종 2차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백신접종 2차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까요?

우리는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구들과 만나 밖에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래방을, 영화관을 갈 수 있을까요?

백신이 100%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어느 하나의 소망이라도 이루어 지길..

코로나19 이제 그만

〈백신 1차 접종날의 단상〉

성촌의집에서





# 별마을 메모리즈

## 김치만들기



(주)인천농산물에서 김장재료를 후원해주셔서 맛있는 오이소박이를 만들었습니다~

## 인권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교육, 김영병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 체성분측정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서 이용자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 체성분측정을 하였습니다.

## 운영위원회



2021년 성촌의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첫번째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특장차 폐차



오랜시간동안 성촌의집 이용자들의 밭이 되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특장차가 기나긴 시간을 뒤로하고 노후경유차가 되어 폐차가 되었습니다.

## 5월의 크리스마스



코로나19를 긴 시간동안 함께 극복하고 있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기프트박스를 나누었습니다.



#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 ♥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떡

교촌경인유통



교촌치킨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부



마스크

라성약국



구충제

안스베이커리 구월점



빵

인천농산물주식회사



김치재료

인천도시가스(주)



식기세척기·쌀

한국희망집짓기운동분부



돼지고기

가족공원사업단



화단꾸미기

동그라미봉사단



도시락 배달

한우리봉사단



도시락 배달



## 십정2동 이웃들과 함께 만나는 동암누리마실방 1호

성촌의집 이용자들과 십정2동 주민들이  
원예라는 같은 취미와 관심사가 통하여  
“동암누리 마실방 1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밀폐된 유리그릇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보는 토피어리!!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과 같이 원예활동을 해보았습니다.

4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같이 활동을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마실방 1호가 종료되면 너무 아쉽죠....  
성촌의집 이용자들과 십정2동 주민들에 아쉬움이 너무 크셔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원예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였답니다.

앞으로의 “동암누리 마실방 1호”원예동아리에  
예쁜 꽃들이 많이 탄생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본 사업은  **사랑의열매** 가 지원합니다.



# ♡ 후원자 명단 (2021.03.01.-2021.05.31.)

## + 신규후원자

개인 : 김태경, 배용노, 유세복

단체 : 인천도시가스(주)

## + 지정후원금

개인 : 임미정

단체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신청사업),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비보강사업)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강성호, 기니피그, 기부, 기쁜노래, 긴급구호자연을  
같이함, 길라잡이, 김정웅, 닉간, 다솜, 디지털장의사, 따뜻  
한복지, 박명숙, 브리운스쿠터, 성촌지기, 숨은천사, 송희연,  
신민진, 아이리스, 에이취, 에스엘알샵영등포점, 연우, 원대  
한꿈을가져라, 이사미, 이신형, 이은주, 정미닛, 편양, 최원  
준, 푸른파도, 한유빈, 현우야사랑해, 혜민공주님, 햄살Sun-  
shine, cacaoa, cchcake001, CoffeeHolic, harnas, kan,  
kka, kkztt, moo, mylove, OnlyWay, pom, riu0213,  
tigger412, xodh120, yuiaslcv

## + 비지정후원금

CMS: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손대원,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부평우체국),

윤재경, 정금자, 조근태, 조성숙, 한연숙

개인 : 강민형, 강혜민, 김기순, 김숙정, 김태경,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배용노, 서영재, 서하나, 송성희, 신진자, 신자남, 유경열, 유세복, 유정운,  
유은율, 유은찬, 원혜신, 이미복, 이성일, 이은주(성촌의집), 정상용(이한희),  
이향란, 장순, 전경제, 정민영, 전정호(이춘희), 조경진, 최원준

단체 :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암교회, 라성약국, 인천중앙감리교회,  
차우차이모금함

## + 후원물품

코로나19대응물품(마스크 등) : 부평구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  
자사인천광역시지부,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부식(쌀, 고기, 김치재료, 도시락, 부식 등) : 인천농산물주식회사, 동그라미  
봉사단, 인천도시가스(주), 태은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한우리봉사단

간식(치킨, 빵, 떡, 커피, 음료수, 과일 등) : 교촌경인유통, 김대식, 김인숙, 김현호,  
부평구청, 송성희, 앤스베이커리(구월점), 이미복, 이향란, 장순, 정진명, (사)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일상용품(샴푸, 화장품 등) :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인천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식기세척기 : 인천도시가스(주)

기타(스타렉스 정기점검, 이용자 치과진료, 구충제) : 시흥현대모티스, 동암중앙  
치과, 라성약국

# ▣ 자원봉사자 명단(2021.03.01.-2021.05.31.)

## 단체 봉사자

### 〈동그라미 봉사단〉 - 중식 도시락 배달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경숙, 김기복, 김인선, 김현미, 민영희, 박병학,  
방혜원, 서금란, 신철균, 안영란, 이금희, 이정혁, 임충휴, 정옥원, 최계한, 최태문

### 〈한우리 봉사단〉 - 중식도시락 배달

김지환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 〈가족공원사업단〉 - 식목일 맞이 화단 꾸미기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1.03.01.-05.31.)

세 입		세 출
지정후원금	복지인프라강화사업비 (장비보강)	8,000,000
	지정후원금	40,000
	해피빈	479,300
비지정후원금	CMS후원금	660,000
	단체후원금	1,902,500
	개인후원금	2,864,010
	기타접수입	7,180
운영비	합계	13,952,990
	기타후생경비	12,000
	수용비및수수료	1,963,060
	공공요금	663,810
	제세공과금	750,000
사업비	차량비	51,480
	기타운영비	200,000
	연료비	3,692,28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867,360
자연재해구호비	지역자원연계사업비	22,000
	영양관리사업비	343,000
합계		9,564,990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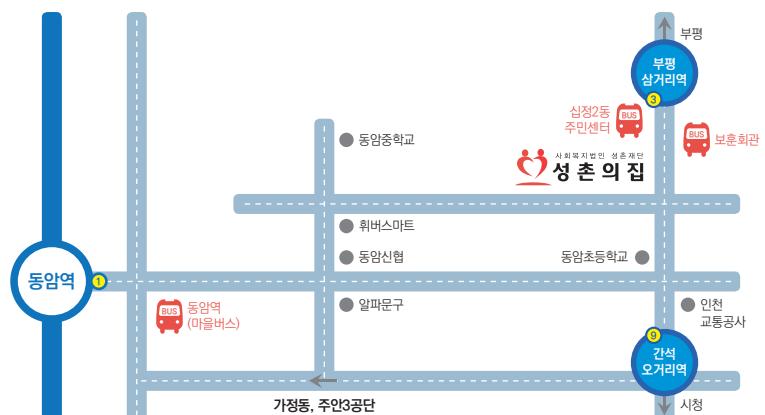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밥솥)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클라이너 침대 등)

###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21년 두 번째 호 (통권35호)

발행처 | 성촌의집 | 발행인 | 이은주 | 편집인 | 이향란 | 편집위원 | 이향란, 김기철, 최성희, 장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